

Magnolia 2016

KYUNG HEE
UNIVERSITY



2016년 12월 16일(금) 19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MAGNOLIA

초 대

2016년이 저물어갑니다. 경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간 애써주신 구성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희는 올 한 해 사회와 세계와의 연계협력을 도모하며, 도약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문과 평화,' 그 역사의 도정 위에 뜻있는 발걸음을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 2017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일궈가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경희가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고, 희망의 내일을 기약하는 '목련회의·목련음악회'에 경희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인원



개 관

기रो에 선 미래, 경희의 성취와 도전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함께 걸어나갈 새 길을 바라보는 연말연시입니다. 2016년 한 해 경희가 일궈낸 성취를 되새기며 다가오는 새해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경희 구성원은 '기로에 선 현대 문명'을 다각도에서 성찰하면서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천 지성을 모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희의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 한 해였습니다.

'함께하는 대학혁신 대장정,' 글로벌 교류 및 관산학 협력, 연계협력 클러스터, Space 21, 경희 구성원이 지난 한 해 노력을 경주해온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대학의 핵심 가치를 강화해 대학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을 두 축으로 전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려는 경희의 비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67년 역사와 전통을 더 나은 미래와 연결시키려는 창조적 도전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대학혁신을 통해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 수렴된 구성원 염원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미래창조스쿨'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 신청 및 장학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원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행정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과 함께 글로벌·관산학 협력이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 문명의 미래'를 주제로 한 PBF 2016에 동참했던 세계적 싱크탱크와 손을 잡고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도 본궤도에 올라섭니다. 서울캠퍼스 홍릉밸리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연계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국제캠퍼스는 산학협력관을 신축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산학협력관은 곧 조성될 첨단 R&D 단지와 더불어 미래과학 클러스터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충남 금산에서도 경희의 미래가 움트고 있습니다. 40여만 평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및 한약물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Space 21 1단계 사업이 완공됩니다. 서울캠퍼스에 한의과대, 간호과학대, 이과대 건물과 함께 행복기숙사가 들어서고, 국제캠퍼스에는 종합체육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6년은 '경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와 한층 가까워진 한 해였습니다. 이 같은 성취 위에 경희는 국내 정상, 아시아 정상을 넘어설 것입니다. 앞으로 3년, 2019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구 문명을 선도하는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학문과 평화'와 함께 비상하는 경희와 더불어 뜻깊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MAGNOLIA

프로그램

목련회의

19:00~20:00

Review 2016 영상

목련상 시상

대학 주요 사업 발표: 글로벌·산학 협력과 경희의 미래

기부증서 전달식

총장 인사말

목련음악회

20:20~21:30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아름다운 공존”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지휘 강석희, 피아노 임효선, 바리톤 강형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경희필하모닉 오케스트라·경희대학교 성악과 합창단

P. I. Tchaikovsky
차이코프스키

Swan Lake Op. 20 Act I No. 2 Waltz
백조의 호수 중 왈츠

G. Gershwin
거슈윈

Rhapsody in Blue - 피아노 임효선
랩소디 인 블루

G. Bizet
비제

“Chanson du Toréador” from Carmen - 바리톤 강형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G. Bizet
비제

“Habanera” from Carmen -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카르멘 중 “하바네라”

J. Strauss
요한 슈트라우스

Overture to Die Fledermaus
박쥐 서곡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목련화

동문 문화예술인

환희, 옥주현

Review 2016 영상

2016 경희, ‘문명 전환’의 기반을 다지다

혼돈의 와중에서 대학의 미래 전망

2016년 경희 구성원은 ‘기로에 선 현대사회’를 예의 주시하며 대학의 존재 이유를 성찰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위기의 신호음이 우리에게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있는가, 있다면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문명사적 격변이 배타적 경쟁과 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상상과 실천의 나라를 펼쳐야 하는 시기, 경희는 문명 전환을 위한 ‘설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 열어가는 글로벌·관산학 협력

경희는 창학 이래 지구공동사회 건설을 목표로 대학의 문명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대학의 핵심 가치를 강화해온 결과, 글로벌·관산학 협력이 구체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출범과 글로벌 교류협력을 통해 경희의 학술적 역량과 국제적 실천 역량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의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와 후마니타스 암병원, 국제 캠퍼스의 미래환경연구소 및 첨단 R&D 단지, 충남 금산의 대규모 신설 연구 단지가 경희의 학술·실천 수준을 ‘인류의 미래’와 연결시켜나갈 것입니다.

세계적 싱크탱크와 함께 지구 문명의 미래 모색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 35주년을 맞아 경희는 세계적 싱크탱크와 함께 ‘지구 문명의 미래’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 지성을 수렴했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PBF 2016에는 로마클럽, 부다페스트클럽,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 소속 세계 지성이 자리를 함께해 문명 전환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PBF 2016에 동참했던 세계 지성들은 향후 경희와 함께 교육·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꿈의 캠퍼스’와 함께하는 2017년

2016년 경희의 학술 역량은 지속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구 역량 비중이 높은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국내 5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도 계속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함께하는 대학혁신 대장정’도 구성원 의견을 모아 교육과 학술, 행·재정 부문에서 혁신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Space 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꿈의 미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학술, 실천, 인프라 등 대학의 전 부문이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목련상

구성원이 함께 써나가는 도전과 성취의 서사

목련상

목련상은 구성원이 함께 써나가는 도전과 성취의 서사입니다.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에,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본교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별 수상자

제정 첫해인 2009년에는 교육 부문에서故 이성호 교수(경영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서 유명철 석좌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가 수상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 부문에서 장진 석학교수(이과대학)와 손영숙 교수(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서 김창환 명예교수(한의과대학), 2011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도정일 명예교수(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 부문에서 조병춘 전 사무국장(기획위원회 사무국)과 최부영 농구감독(체육부)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2년에는 연구 부문에 이동훈 교수(대학원 우주탐사학과), 2013년에는 실천 부문에 김종섭 교수(문과대학), 특별공로상에 이근수 동문(동아일렉콤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김백봉 명예교수(무용학부), 연구 부문에서 김동헌 교수(약학대학), 실천 부문에서故 김종규 교수(지리학과)가 목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김윤희 명예교수(간호학과), 연구 부문에서 류기원 명예교수(한의학과), 실천 부문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르스 비상경영총괄위원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선정 과정

지난 9월 30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교육 부문 4명, 연구 부문 17명, 실천 부문 4명(팀) 등 총 25명이 접수됐습니다. 부총장단과 경희 Fellow, 교무위원, 기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 부문에 김훈식 교수(이과대학 화학과), 연구 부문에 김우식(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이충기 교수(호텔관광대학), 실천 부문에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을 최종 수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목련상 조형물

목련상 조형물은 우리 대학의 교화인 목련을 오른손에 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개화 직전의 목련과 인간의 손은 경희의 창학 이념과 미래 비전을 응축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경희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나갈 인류의 문화세계를 상징합니다.

목련상 수상자 - 교육 부문

김훈식 이과대학 화학과 교수



김훈식 교수는 화학과의 교육철학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화학과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산업 연관 과목들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의 연구 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학생 졸업논문 포스터 발표회를 학과 행사로 진행해 학생들의 학업·연구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공업화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2014년에는 대주산학연 협력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공업화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공업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책임 연구원, Journal of Industrial Chemistry & Engineering Editor in chief,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Postdoctor,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Postdoctor,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2011), 한국공업화학회 대주산학연 협력상(2014), 한국공업화학회 한국공업화학상(2015).

목련상 수상자 - 연구 부문

김우식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김우식 교수는 20여 년간 꾸준히 결정화 기술을 연구하고 세계 최초로 결정화 공정 효율 결정화기를 개발한 연구자입니다. 또한 새로운 돌파형 연구 개발을 통해 국내 결정화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고, BK21 핵심사업팀장, BK21 Plus 핵심사업팀장, 도약 연구 책임자, 결정화 기술 사업단장, 다양한 국제학술 대회의 학술 및 조직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01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2009년 과학기술공로자 국무총리 표창, 2008년 신기술인증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약력 한국연구재단 ERC 센터장, Asian-Pacific Confederation of Chemical Engineering Board Director, Nanosci Nanotech Letter Associate Editor,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학술진흥위원, 한국연구재단 BK21 Plus 핵심사업팀장, 한국화학공학회 분리기술부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연구재단 공학단 책임전문위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상(2014), 이달의 과학기술자상(2013), 과학기술공로자 국무총리 표창(2009).

목련상 수상자 - 연구 부문

이충기 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교수



이충기 교수는 관광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입니다. 2016년 현재 SSCI급 논문을 103편 게재했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는 170편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관광 분야의 세계 Top3 SSCI 저널의 게재 논문을 토대로 선정한 세계 25인의 연구자 중 세계 8위를 했으며, Scopus를 통한 57개의 관광·호텔 분야 게재 논문 중심의 세계 100명의 연구자 중에서는 세계 6위를 했습니다. 2016년 중앙일보의 연구 부문 평가에서는 일반사회과학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기초연구 우수성과 선정 인증을 받았고, 2012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기초학문육성 10년 대표성과' 선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5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력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한국호텔관광학회 우수 논문상(2016), 최우수논문상(2015), 2015 World Hospitality & Tourism Forum Gold Prize Award(2015), Proceeding of the I-CHRIE 2008 Annual Conference & Exposition Best Paper Award.

목련상 수상자 - 실천 부문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은 교수와 행정직원 등 경희의료원 구성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종합 병원급의 의료봉사 단체입니다. 국외의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1997년 3월 창립 이래 75회의 국내 의료봉사, 25회의 해외 의료봉사 및 불우이웃돕기(장학금·참고서 지급, 극빈환자 진료비 지원), 지체장애시설 봉사, 헌혈운동, 재능기부(심폐소생술, 성폭력 예방교육), 외국인 근로자 대상 주말 무료 진료(3,674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밝은사회 당진클럽 의료봉사, 고흥 '찾아가는 의료봉사' 실시, 전남 강진군 주민 진료, 충남 태안군 주민 진료, 러시아 연해주 나훗카 무료 진료, 몽골 알타이 고비사막 무료 진료, 지체장애시설 진료, 쪽방촌 김장 담그기, 사랑의 헌혈운동, 발전기금 봉사단 버스 구입.

글로벌·산학 협력과 경희의 미래

문명사적 대전환, 2017 경희의 꿈과 포부

대학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글로벌 연계협력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경희의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출발점은 창학 이념 '문화세계의 창조'입니다. 창학 초기부터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대학의 지구적 소명 의식이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핵심 동력입니다.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구체적 성과가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 홍릉밸리, 국제 산학협력관: 경희의 새로운 도약대

충남 금산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와 물 연구소, 한약물 연구소 등 에코 파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에는 첨단 R&D 단지과 경희-삼성 산학협력관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홍릉 바이오의료 단지가 조성되고 후마니타스 암병원이 신축됩니다.

함께하는 대학혁신과 '미래창조스쿨'

대학혁신은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 나타난 구성원의 절규와 희망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거교적 사업입니다. 대학혁신의 첫 결실이 내년 봄 오픈되는 '미래창조스쿨'입니다. 미래창조스쿨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대학을 위한 인프라와 안정적 재정 구조 구축

Space 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희의 학술과 실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에서는 지출을 최적화하고 비학위과정 활성화, 산학협력단 전입금 및 발전기금 규모 확대, 교육용 부지 유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2017년 국내 대학 3위, 2019년 세계 정상권 대학

2017년 새해, 우리는 국내 대학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개교 70주년을 기해 경희는 세계적 명문, 지속 가능한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기부증서 전달식

이영림 영림한방병원장



이영림 원장은 1941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 1974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이란 파라(Fahra)대학교에서 신경외과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6년부터 1994년까지 18년간 이란 왕립 병원 타즈리시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며 이란 왕실 주치의를 맡았고, 동양의학센터장과 파라대학교 의과대학 동양의학 임상교수를 지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의학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은 책으로 『Traditional Medicine English』(공저), 『이란 왕실 주치의 이영림 박사의 한방 건강 이야기』, 『골드 핑거 - 가정동의보감』, 『몸이 예뻐지는 웰빙 건강법』 등이 있습니다.

故 팔레비 국왕부터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까지 이란 최고위층의 한방 주치의로 활동한 이영림 원장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여성 한의사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전통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18년간의 오랜 타국 생활을 뒤로하고 1994년 영구 귀국했으며 그 뒤 효애(孝愛)실천운동, 안보운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약력 제14대·제15대 경희대학교총동문회 여성동문회장(2009~2012),
사단법인 효애실천운동본부 회장, 서초안보포럼 이사장(2014~현재).

기증 내용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토지, 소장품 등.

MAGNOLIA

목련음악회

목련음악회는 경희 가족과 지역 주민, 국내외 시민을 위한 축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음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과 시민이 어우러져 송구영신의 의미를 함께하는 이 음악회는 대학의 문화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지휘 강석희



피아노 임효선



바리톤 강형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경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희대학교 성악과 합창단 안무 백주미

동문 문화예술인



환희



옥주현



P. I. Tchaikovsky Swan Lake Op. 20 Act I No. 2 Waltz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중 왈츠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1877년 초연)는 고전 발레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제1막 지크프리트 왕자의 성인식 장면에서 연주되는 매우 우아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왈츠다.

G. Gershwin Rhapsody in Blue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거슈윈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조화시킨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거슈윈의 피아노 연주와 재즈밴드에 의해 초연된 피아노협주곡 '랩소디 인 블루' 역시 클래식 음악의 요소와 재즈 기법이 녹아들어 있는 멋진 곡이다. 글리산도로 연주하는 클라리넷의 도입부부터 청중은 이 곡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G. Bizet "Chanson du Toréador" from Carmen

비제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제2막에서 위풍당당하고 씩씩한 투우사인 에스카밀리오가 등장하여 그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아리아다.

G. Bizet "Habanera" from Carmen

비제 카르멘 중 "하바네라"

매혹적인 집시 여공 카르멘이 순진하고 고지식한 군인인 돈 호세를 유혹하며 부르는 노래다. 탱고 등의 모체가 된 에스파냐의 춤곡 하바네라를 카르멘은 요염하게 부르며 돈 호세에게 추파를 던진다.

J. Strauss Overture to Die Fledermaus

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박쥐'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오페레타(희가극) 작품이자 빈 오페레타의 최고 걸작이다. 특히 서곡은 왈츠와 폴카가 있는 우아하고 화려한 선율이 대단히 매력적이다.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Magnolia 2016

목련회의는 올 한 해 경희의 성취를 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함께 나누는 '금지과 포부'의 자리입니다.

목련음악회는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축전입니다.
